

검찰·금감원 등 사칭한 보이스피싱 37%

1~7월 '기관사칭형' 전화사기 전년 21%에서 늘어 위조·악성 앱 등 정교한 수법에 고학력자도 당해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자신이 서울OO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상대방은 이미 A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니 프로필에 검찰청 사진이 보였다. 검사는 카톡으로 공무원증도 보내줬다.

검사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쓰였으며, A씨 앞으로 70건 정도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톡으로 고소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검사는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며 겁주는 대목이 많았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링크를 보냈다. 무심코 그 말을 따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이 깔렸다.

검사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에게 대출을 받아 실제 출금을 해 건네라고 요구했다.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돈은 전액 돌려준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예·적금, 보험, 주식도 남김없이 꺼서 현금을 마련했다. A씨가 돈 다발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가보니 이번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있었다. A씨는 이렇게 금감원 직원에게 40여원을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기관사칭형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21%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까지 전화금융사기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형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액 자산을 노리는 기관사칭형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달 기관사칭형 범죄 피해액은 270억원으로, 발생건수가 더 많은 대출사기형(275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만 각

40억원, 10억원, 9억원 상당의 다액 피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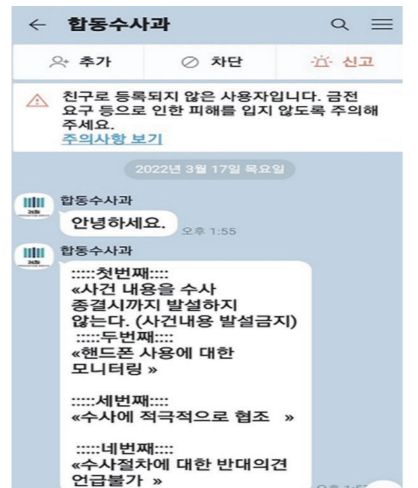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1만4197건으로 전년(2만402건)보다 30%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처럼 다액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관사칭형 범죄 비중이 늘면서 경찰청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위조 수법이 정교해 의사·연구원·보험회사 직원 등 고학력자나 직업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67%)가 다수지만, 다액 피해는 주로 자신이 축적된 4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 피해자를 속인 뒤,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기능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해 여러 기관에 확인 전화를 해보더라도 조직원들

이 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교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나오고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며 "특정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경,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 담양소방서 현장방문
담양소방서는 18일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이 담양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진도소방,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최근 향적사 등6개소 대상으로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주 동부소방, 광주천 상류에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는 광주천 상류에서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광주보훈청,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장수사진 전달 및 위문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은 최근 고령의 취약계층 보훈대상자(14명) 가정을 방문하여 만수무강을 위한 장수사진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최이슬 기자



광양경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 나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18일 광양읍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범죄예방 외국인밀집지역 합동 순찰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전남청 및 지역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영산포 이창동 및 산포 소재지 일대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해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합동 순찰을 실시 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코로나 먹는치료제' 60대이상 처방률 20.8%...소폭 증가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증 증 예방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60세

요양병원 확진자 41%, 요양기관 확진자 14.7% 처방

이상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이 20.8%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3주(14~20일) 60세 이상 확진자 20만2595명 중 4만2094명이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각 시·도별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주(20.3%) 대비 0.5%p 증가했다. 전남(26.9%), 부산(24.1%), 강원(23.1%), 대구(23.6%) 등 지역은

평균보다 처방률이 높았다.

8월2주 고위험 취약시설의 평균 처방률을 보면 요양병원 확진자 3441명 중 1441명(41.0%), 요양기관 확진자 5466명 중 801명(14.7%)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방대본은 "시·도별 처방률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



을지연습 훈련 연습하는 군사경찰대원
육군 31보병사단 군사경찰대원들이 23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2022 을지연습 훈련을 하루 앞두고 레펠 하강 연습을 하고 있다.
최이슬 기자



'거푸집 추락 위험' 광주 신축 공사장 내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

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거푸집이 추락할 뻔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 일부 공정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 북구는 지역 내 거푸집 추락 위험 사고가 발생한 신축 아파트 현장 시공업체 A건설사 측에 크레인 관련 공정 작업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대로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14층에 설치하려던 거푸집 구조물(강폼)이 크레인 쇠줄에 매달린 채 8층 외벽까지 걸쳐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로 통행이 통제돼 2시간 넘게 차량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사고 직후 시공사는 대형 크레인을 추가 투입해 거푸집을 떠받치는 등 추락 방지 작업을 펼쳤다.

북구는 크레인 쇠줄 연결 부위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밀 점검을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인 설비 관련 문제로 확인될 경우 수리를 거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빌려준 돈 왜 기억 못 해" 80대 노모 때린 50대

징역 8개월·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8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해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께

전남 한 지역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치고, 가슴·배·허벅지·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30년 전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으나 B씨가 반문하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내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어머니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범원 임

기동취재본부